

이달의 초점

## 한국의 사회불안 인식과 사회보장의 과제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

|곽윤경|

중년의 이종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변금선|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

|이아영|

사회불안 인식의 코호트 간 비교

|구혜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중년의 이중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sup>1)</sup>

The Burden of Dual Tasks and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Middle-Aged Koreans: Focusing on Family Care and Old-Age Preparation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이 연구에서는 2022년 45~64세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이 중년기 이중과업(가족돌봄 부담과 노후준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중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고령화, 만혼으로 인해 부모, 자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공적연금 한계로 인해 노후준비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분석 결과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에서는 가족돌봄 부담 수준이 높았는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집단에서 더 높았다. 전체 중년 중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집단은 12.5%였으며, 이중과업 부담은 40대 초기 중년이 60대 중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 중년의 76.2%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안 된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은 부담이 없고, 노후준비가 된 중년보다 11.2% 포인트 더 높았다. 중년의 이중과업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 1 들어가며

중년(middle age)은 40~60대를 포괄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생의 황금기(golden age)라고도 불린다. 중년기는 성인기를 성인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었을 때 성인 초기인 청년기와 성인 후기인 노년기보다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 가는 삶의 절정기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중년층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안정적이고 그만큼 사회불안 인식도 낮을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한국 중년이 경험하는 사회불안

1) 이 글은 이현주, 박윤경, 이아영, 변금선, 전지현. (2022). 한국의 사회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 불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3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회 불안 격차'를 발췌해 정리한 것이다.

은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년기의 생애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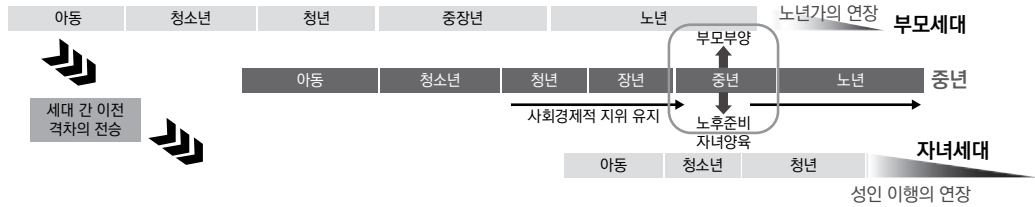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에서 중년층은 획득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는 연령집단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노화에 따르는 가족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이중부양 부담(double care burden), 그리고 본인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sandwich generation)이기도 하다(Tan, 2018; 백경흔 외, 2018). 한국 사회에서 관측되는 성인 자녀인 청년층의 교육수준 상향화로 인한 교육 기간 연장과 노동시장 불안정성, 일자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 시기의 지연은 중년층의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을 높이고 있다(김유경, 2018). 이와 더불어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 노년을 맞이한 부모의 돌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김유경, 2019; 권희선, 전귀연; 2020; 정규형, 박서영, 2014; 조지민, 김문근, 2021).

한편 중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매우 다른 중년기를 경험한다. 정년을 보장받기 어려운 일에 종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중년층은 이른 퇴직과 이로 인한 연금 개시 연령 이전까지 소득 단절, 그리고 노후준비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불안 인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년기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을 앞둔 시기여서 은퇴 불안이 높은 시기로 인식되는데, 한국 사회의 중년층 다수는 노인이

되기 전 은퇴를 경험한다. 2021년 기준 55~74세 중고령자가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이다(통계청, 2022a). 중년층 대부분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혹은 기초연금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소득 단절(income crevasse)을 경험한다. 2021년 기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21.1%로 2020년 21.6%보다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비율이 90%를 초과하지만, 300인 미만의 노조가 없는 기업은 그 비율이 17.6%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21). 공적연금도 확대되었지만,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55.1%에 지나지 않았으며(통계청, 2022a), 중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 원에 그쳤다(통계청, 2022b).

이러한 일자리 기반의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비롯되는 이중화(dualization)는 중년층이 경험하는 사회불안의 격차를 크게 만들 수 있다. 정년을 보장받는 일에 종사하는 중년층은 현재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은퇴 후에도 공적연금 등을 통한 안정적 노후가 보장된다. 반면 정년 보장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중년층은 조기 은퇴와 재취업으로 중년기에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장과 이로 인한 소득 단절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불안정은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안정적 노후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림 1] 생애과정 관점에서의 중년 위치



주: "한국의 사회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 불안", 이현주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28 (그림 5-1)을 일부 수정 보완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 차이를 중년기의 이중과업인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중과업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불안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어느 시기에 아동, 청소년, 청년기를 보내고, 중년의 어느 시기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이중과업과 사회불안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년을 3개의 세대(X세대, 2차 베이비붐세대, 1차 베이비붐세대)로 구분하였다. 40대 후반은 만혼으로 인한 자녀 돌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50대 2차 베이비붐세대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른 은퇴와 부모 부담이 따르며, 60대 초반은 부모 돌봄 부담과 노년기로 전환하기 바로 이전 시기의 특성을 보이므로 이들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분석 방법

### 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돌봄과 노후준비, 사회불안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중년의 생애, 이중과업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분석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년의 생애 경험,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라는 이중과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시 개인의 현시점 사회불안에 누적적 영향을 미쳐 사회불안의 격차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불평등 관점에서 계층 요인인데, 성, 연령, 부모의 가족 배경 등 바꾸기 어려운 귀속지위(ascribed status)와 스스로 획득한 교육, 직업지위 등 획득지위(achieved status)로 구분된다. 귀속지위는 획득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획득지위는 중년기 이중과업 부담에 영향을 미쳐 현시점 중년의 사회불안 격차를 만들어 내는 요인

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년은 만 45~64세를 포괄한다.<sup>2)</sup> 중년의 이종과업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중년기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년은 자녀와 부모 등 가족 돌봄과 본인의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노후 준비라는 두 가지 중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종과업은 중년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3)</sup> 사회불안 인식은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5점 척도 문

항에서 ‘4. 불안하다’, ‘5.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 나. 분석 자료와 분석 대상 특성

이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실시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sup>4)</sup>를 활용하여 중년의 이종과업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을 출생 코호트별 세대로 구분한다. 세대(generation)는 특정 시기,

[표 1] 출생 코호트별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연령

(단위: 세)

역사적 시간	주요 사건	출생 코호트별 현시점 개인의 연령(출생 연도)		
		1차 베이비붐 59~64세 (1958~63년생)	2차 베이비붐 48~58세 (1964~74년생)	X세대 45~47세 (1975~77년생)
1988	1988 올림픽	25~30	15~24	11~14
1997~1998	1997 외환위기	34~39	24~33	20~23
2003~2005	신용카드 대란	41~46	31~40	27~30
2008	글로벌 금융위기	45~50	35~44	31~34
2014	세월호 침몰 사고	51~56	41~50	37~40
2020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57~62	47~56	43~46

주: 세대구분은 Elder and Pavalko(1993)의 <표 2>를 참고 구성함.

출처: “한국의 사회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 불안”, 이현주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0 <표 5-1>발췌.

-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40대 초반인 장년층을 제외하였다. 하지만 최근 청년기 연장 등 생애과정 변화를 고려할 때 이종과업 특성을 파악하는 데 더 적절한 대상일 수 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34세로 정의되지만, 39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 도봉구, 전북 정읍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45세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특히 늦은 출산을 고려해 신혼부부 대상 정책은 40대 초반을 포괄하기도 한다(변금선 외, 2024 발간 예정).
- 이종과업은 가족과 중년 개인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년층의 이종부양 부담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중년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부양과 더불어 본인의 노후에 관한 부양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년이 직면하는 이종과업이라고 정의하였다.
- 전국의 만 4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의 3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은 주민등록 인구 현황(2022년 6월 말) 자료에 근거해 모집단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비례 할당으로 추출하였고, 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하였다(이현주 외, 2022: p. 57).

[표 2]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1차 베이비붐 59~64세	2차 베이비붐 48~58세	X세대 45~47세	
사례 수	3,575	1,040	2,009	526	
여성 비율	49.4	50.8	47.4	54.2	
평균연령(세)	54.4	61.4	52.9	46.0	
대도시 거주 비율	40.8	41.1	41.3	38.4	
배우자 있음 비율	76.1	78.2	75.9	72.6	
18세 미만 아동 있음 비율	24.7	3.0	27.1	58.4	
65세 이상 노인 있음 비율	17.7	22.4	14.6	20.0	
가구주 비율	62.1	64.5	62.6	55.7	
1인가구 비율	15.0	19.1	13.5	12.2	
건강상태 좋음 비율 <sup>1)</sup>	30.8	33.4	29.9	29.1	
심리적 불안 평균(4점척도) <sup>2)</sup>	1.88	1.80	1.90	1.97	
자가 거주	69.9	72.6	68.8	68.8	
기준중위 50% 미만	9.9	11.4	9.6	8.6	
가족 돌봄 어려움 비율	일상생활	24.3	21.7	24.5	28.5
	사회, 경제활동	15.5	12.8	15.7	19.8
	경제적 문제	18.3	15.4	19.2	20.7
노후준비 은퇴 경험 <sup>3)</sup>	하고 있음 비율	57.0	64.2	55.9	46.8
	있음 비율	45.7	66.5	39.5	28.3
20세 이전 소득 계층 <sup>4)</sup> (%)	하(최하)	17.5	15.0	18.0	20.7
	중(중하, 중상, 중)	72.2	72.3	71.9	73.4
	상(최상)	10.3	12.7	10.1	5.9
본인 소득 계층 <sup>4)</sup> (%)	하	12.9	13.9	12.3	13.3
	중	76.8	74.1	77.4	80.0
	상	10.3	12.0	10.3	6.7
본인 교육(대학 졸업 이상) %	72.1	66.1	73.5	78.3	
현재 상태 (%)	상용직	47.2	32.6	50.7	62.6
	임시, 일용직	12.6	14.2	12.1	11.2
	고용주, 자영업	17.0	19.7	17.4	10.1
	실업자	5.8	7.1	5.8	3.2
	비경제활동	17.5	26.4	14.0	12.9

주: 1)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5점 척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에 '매우 좋음',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20개 문항으로 조사한 심리적 불안 척도의 응답값 평균임. 노후준비는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4) 5개 구간(상, 중상, 중, 중하, 하)으로 조사한 소득계층을 상, 중, 하로 재분류하여 활용함.

출처: "한국의 사회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 불안", 이현주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36 <표 5-3> 일부 수정.

사회경제적 사건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는 동일한 시기에 태어나 같은 연령계층과 역사적 시간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여기서는 중년을 출생 코호트와 세대 개념을 결합해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sup>5)</sup> <표 1>은 분석 대상의 코호트별 사회경제적 사건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표 2>는 코호트별 분석 대상의 특성을 보여 준다.

귀속지위는 20세 이전 소득계층, 성, 연령이며, 획득지위는 본인의 소득계층, 현재 상태, 교육수준이다. 분석 대상의 평균연령은 54.4세였으며, 45~47세 X세대의 여성 비율은 높고, 48~58세 2차 베이비붐세대의 여성 비율은 다소 낮았다.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 거주는 38.4~41.3%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76.1%였는데, 1차 베이비붐세대가 가장 높았다.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차 베이비붐세대가 2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65세 이상 고령의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는 24.7%였는데, 1차 베이비붐세대(3.0%)와 다른 세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양육이 대체로 2차 베이비붐세대와 X세대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자가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였으며,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높은 비

중이었다. 주거 점유 형태의 생애주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6)</sup> 가구소득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로 측정한 빈곤율은 1차 베이비붐세대(11.4%), 2차 베이비붐세대(9.6%), X세대(8.6%) 순으로 높았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의 경우 일상생활 시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 사회적 관계나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15.5%, 가족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18.3%였다. 1차 베이비붐세대는 2차 베이비붐세대, X세대보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는데, 자녀 양육에 관련한 돌봄, 부모 부양의 어려움이 대체로 40~50대 중년층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57.0%였는데, 1차 베이비붐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였으며, 1차 베이비붐세대는 66.5%, 2차 베이비붐세대는 39.5%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 귀속지위인 20세 이전 시점 주관적 소득계층 인식은 1차 베이비붐세대, 2차 베이비붐세대, X세대 순으로 높았다. 획득지위인 소득계층 인식은 상대적이므로 경제성장에 따른 불평등 확대로 인해 40~50대가 60대보다 더 하층이

5) 세대 구분은 김종남(2014), 박성준(2011), 윤경자·임주영(2011), 최은영(2015)을 참고하였다.

6) 주거 점유 형태의 생애주기 특성이란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20~30대에는 전월세 비율이 높고, 40대부터 점차 자가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의미한다(김리영, 2013).

라고 인식할 수 있다. 현시점 소득계층은 20세 이전 시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은 72.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X세대는 78.3%에 달했다. 1990년대 대학 증가로 인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의 결과로 보인다. 현재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상용직 비율은 X세대가 62.6%로 1차 베이비붐세대, 2차 베이비붐세대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실업률은 1차 베이비붐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1차 베이비붐세대는 고용주나 자영업자인 비율, 임시일용직 비율도 높았다.

### 3 중년의 가족돌봄 부담과 노후준비 특성

여기서는 중년의 가족돌봄 부담과 노후준비 특성으로 이중과업 현황을 확인하였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지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교차하여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족돌봄으로 인해 생활시간, 경제활동, 경제적 부담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년 중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26.7%,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43.0%였다. 다음 <표 3>은 이중과업 유형을 요약한 것이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이 낮다고 할 수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과업으로 인한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와 <표 4>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중과업 유형 분포이다. 돌봄 어려움이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아 이중과업 부담이 모두 있는 집단의 비율은 남성, X세대, 20세 이전 소득계층 하층, 경제활동 상태가 실업인 경우, 현시점 소득하위 계층이 더 높았다. 반대로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으며 노후준비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은 남성, 대학교 졸업 이상, 상용직, 소득 상위 계층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이 생애과정에서 직면하는 과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표 3] 이중과업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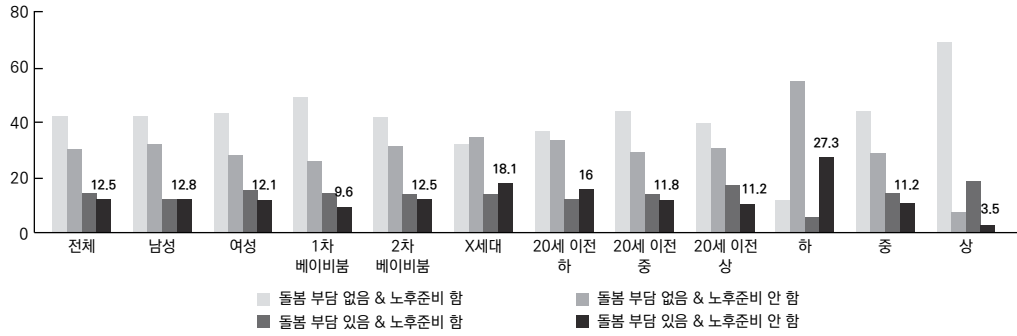
구분	이중과업 부담 수준			
	낮음 ← 유형1	유형2	유형3	→ 높음 유형4
가족돌봄 어려움	x	x	○	○
노후준비	○	x	○	x

출처: "한국의 사회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 불안", 이현주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9 <표 5-10> 발췌.



[그림 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중과업 유형

(단위: %)



주: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한국의 사회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 불안", 이현주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9 (그림 5-11) 발췌.

[표 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중과업 유형 분포

(단위: %)

구분	이중과업 부담 수준				
	낮음 ←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함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안 함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함	→ 높음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안 함	
전체 (n=3,575)	42.7	30.6	14.3	12.5	
성별	남성	42.2	32.2	12.8	12.8
	여성	43.2	28.9	15.7	12.1
연령	1차 베이비붐	49.6	26.2	14.6	9.6
	2차 베이비붐	41.8	31.7	14.0	12.5
	X세대	32.3	35.2	14.5	18.1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하	37.5	34.3	12.3	16.0
	중	44.3	29.6	14.3	11.8
	상	40.2	30.9	17.8	11.2
교육수준	고졸 이하	33.6	40.2	10.8	15.3
	대학 졸업 이상	46.2	26.8	15.6	11.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44.2	28.1	16.2	11.5
	임시, 일용직	40.5	35.2	10.2	14.0
	고용주, 자영업	42.1	30.4	14.5	13.0
	실업	33.3	36.2	14.0	16.4
	비경제활동	43.8	32.2	11.9	12.2
현재 소득 계층	하	11.9	55.0	5.8	27.3
	중	44.2	29.5	15.1	11.2
	상	70.0	7.6	18.8	3.5
기준중위 빈곤	비빈곤	44.9	29.5	14.7	10.9
	빈곤	22.5	40.6	10.4	26.5

주: 모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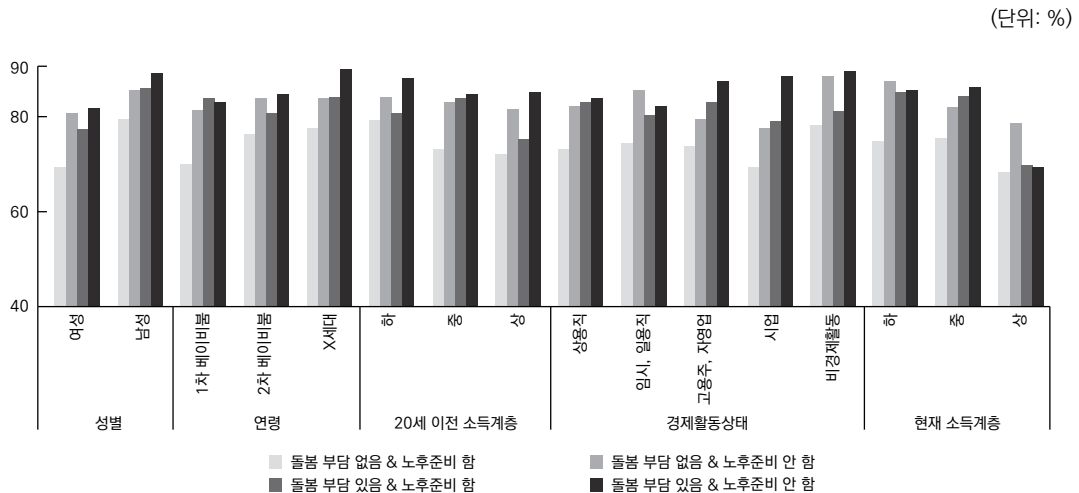
출처: "한국의 사회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 불안", 이현주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0 (표 5-11) 발췌.

## 4 중년의 이종과업과 사회불안 인식 격차

[표 5]와 [그림 3]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종과업 유형에 따른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집단이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집단 유형별 사회불안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돌봄부담이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5.4%였는데, 이는 전체 사회 불안 인식(76.6%), 돌봄부담이 없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중년(74.2%)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남성, X세대,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이 하층, 경제활동 상태가 실업과 비경제활동인 경우 현재 소득이 하위계층이면 사회불안 인식이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20세 시점 소득계층이 하층이면서 가족돌봄 어려움이 있고,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85.7%였는데, 이는 상층(69.2%)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3]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종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불안 인식



주: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불안 인식을 분석함.

출처: "한국의 사회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 불안", 이현주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1 <그림 5-12> 발췌.

[표 5]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중과업 유형에 따른 사회불안 인식<sup>1)</sup>

(단위: %)

구분	전체	이중과업 부담 수준				카이 검정 <sup>2)</sup>	
		낮음 ←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함	돌봄 부담 없음 노후준비 안 함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함	→ 높음 돌봄 부담 있음 노후준비 안 함		
전체 (n=3,575)	76.6	74.2	83.0	82.2	85.4	***	
성별	여성	75.7	69.1	80.6	77.6	81.9	***
	남성	77.5	79.3	85.7	86.0	89.3	
연령	1차 베이비붐	75.0	69.8	81.3	83.6	83.0	**
	2차 베이비붐	76.8	76.2	83.5	80.9	84.5	
	X세대	79.1	77.6	83.8	84.2	90.5	
20세 이전 시점 소득계층	하	82.6	79.1	84.2	80.5	88.0	#
	중	75.3	73.4	82.9	83.7	84.6	
	상	75.4	72.1	81.4	75.4	85.4	
교육수준	고졸 이하	74.8	68.2	82.8	82.4	81.7	
	대학 졸업 이상	77.3	75.9	83.1	82.1	87.4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77.7	73.2	82.1	82.8	83.5	#
	임시, 일용직	77.3	74.2	85.4	80.4	82.5	
	고용주, 자영업	74.8	73.8	79.5	83.0	87.3	
	실업	75.4	69.6	77.3	79.3	88.2	
현재 소득 계층	비경제활동	75.2	78.4	88.6	81.1	89.5	
	하	84.8	74.5	87.4	85.2	85.7	
	중	76.5	75.4	81.8	84.1	86.0	***
	상	66.5	68.5	78.6	69.6	69.2	

주: 1) 단문으로 측정된 사회불안 인식을 분석함.

2) # p<0.10,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의 사회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 불안", 이현주 외,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52 <표 5-12> 발췌.

## 5 나가며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이 이들이 생애과정에서 직면하는 이중과업(가족 돌봄, 노후준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사회불안은 전반적인 사회불안 인식으로 측정하였고, 이중과업은 가족돌봄으로 인한 부담과

노후준비 여부를 고려해 유형화하였다.

2022년 기준 45~64세 중년을 대상으로 이중과업과 사회불안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 연령집단, 20세 이전 주관적 소득계층으로 측정된 귀속지위에 따라 사회불안 인식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의 사회불안 인식이 높았고, 1차 베이비붐세대, 2차 베이비붐세

대보다 40대 후반인 X 세대의 사회불안이 높았다. 획득지위는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상태, 현재 소득 계층에 관한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하였는데, 2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고졸 이하인 집단의 사회불안 인식이 높았으며, 임시일용직, 실업, 비경제활동 상태인 경우, 그리고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상층보다 사회불안 인식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 이중과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0세 이전 시점에 소득 하위계층인 경우 사회경제적 사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어려움과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집단에 속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은 가족돌봄 부담 수준이 높고,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집단에서 더 높았다. 전체 중년 중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집단은 12.5%였으며, 40대 초기 중년이 60대 중년보다 이중과업 부담이 높았다. 전체 중년의 76.2%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돌봄 부담이 있고 노후준비가 안 된 중년의 사회불안 인식이 11.2% 포인트 더 높았다. 중년의 이중과업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청년과 중년은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청년 실업과 니트, 코로나19 이후 고립, 외로움, 정신건강의 심화는 청년 정책의 확대에 이어졌고,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 사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청년기 이후인 중년기의 생애과정 특성과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크

게 주목하지 않았다. 최근 중년 고독사를 중심으로 중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취약성이 발현된 소수에 대한 사후적, 협의의 복지에 그치고 있다.

중년의 사회보장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전반적으로 중년기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년은 자녀와 부모를 돌보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제도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중년은 청년 자녀와 노년의 부모가 교차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중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구성하고 노년기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 등 사적 안전망을 통한 복지욕구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이 된 성인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지연되고, 고령화로 인해 연로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년이 마주하는 이중과업은 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높이고,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화될 우려도 있다.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라는 중년의 이중과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을 확충해야 한다. 치매, 노인성 질환에 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에 노인 통합돌봄 등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공적연금과 더불어 다층적 노후준비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청년이 보장된 안정적 일자리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소수의 중년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생애로 인해 충분한 연금을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중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중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분절적이고 연령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인간의 생애 경로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연령을 기반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담당 부서와 사업을 구분하는 것은 정책 공급자 관점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립·은둔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에서 중년이 된 경우, 그리고 중년기 고립이 노년으로 지속되는 경우 정책 분절로 인한 단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㉞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 권희선, 전귀연. (2020). 중년세대의 성인자녀 지원 부담과 긍정심리자본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9(2), 171-185.
- 김리영. (2013). 시기별 자가로 이동한 임차가구의 생애 주기 특성 연구. **국토계획**, 48(2), 341-356.
- 김유경. (2018). 성인자녀 부양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6), 79-98.
- 김유경. (2019).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9(5), 74-92.
- 김종남. (2014). **베이비붐 세대 부모의 부양 기대와 예코붐 세대 자녀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 문혜진.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1), 201-226.
- 박성준. (2011). **베이비붐 라이프스타일 기반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재홍. (1996). 한국 신세대의 세대경험과 의식구조. **현대사회**, 43, 24-43.
- 백경훈, 송다영, 장수정. (2018). 이중돌봄 맥락에서 본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 **한국여성학**, 34(2), 33-69.
- 변금선, 김상일, 변미리, 백선혜, 윤민석, 안현찬, 김성아, 홍찬영, 임아름, 박민진, 최지원, 채황석, 박미선, 배정희, 신동훈, 정세정 (2024 발간예정). **서울시 청년정책 성과 진단과 실효성 제고 방안**. 서울연구원.
- 윤경자, 임주영. (2011). 베이비붐 세대 분거가족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193-208.
-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변금선, 전지현. (2022). **한국의 사회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규형, 박서영. (2014).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이 개인의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115-147.
- 조지민, 김문근. (2021). 베이비붐세대의 이중부양부담이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4(2), 49-75.
- 최은영. (2015).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통계청. (2022a). **2022 고령자 통계**. 통계청.
- 통계청. (2022b).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 Elder Jr, G. H., & Pavalko, E. K. (1993). Work

careers in men's later years: Transitions, trajectories, and historical change. *Journal of Gerontology*, 48(4), S180-S191.

Tan, P. L. (2018). Dual burdens of care: "Sandwiched couples" in East Asia. *Journal of Aging and Health*, 30(10), 1574-1594.

# The Burden of Dual Tasks and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Middle-Aged Koreans: Focusing on Family Care and Old-Age Preparation

Byun, Geumsun

(Seoul Institute)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prevalence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those aged 45 to 64 varies depending on their family support burdens and preparation for old age. Middle age was once considered a golden period in life. However, as the population ages and the age at marriage increases, middle-aged people are increasingly burdened with supporting both their parents and children. Preparing for old age is proving to be increasingly difficult, not least due to precarious labor market conditions and the limited benefits one can expect from public pensions. The prevalence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the middle-aged is high for those with family support burdens and even higher for those who report being unprepared for old age. An estimated 12.5 percent of the surveyed middle-aged individuals are found to both have family support burdens and remain unprepared for old age. People in their 40s are more frequently burdened with supporting both their parents and children compared to those in their 60s. This study found that 76.2 percent of those aged 45 to 64 perceive our society as insecure. Even wi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controlled for, those with family support burdens who are unprepared for old age have a 7 to 8 percentage point higher prevalence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Our analysis reveals the need for strengthening social security programs to ease the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ttendant on the difficulties middle-aged Koreans have in supporting their families and preparing for their own old age.